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18.(수) 조간 배포 2026. 11. 17.(화) 17:00

우체국 직원의 예리한 눈썰미가 8천만원 지켰다!

- 경주우체국 , 70대 어르신 8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주우체국 소속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매뉴얼에 입각한 침착한 대응이 70대 어르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 8,000만 원을 지켜냈다.

지난 11월 11일(수) 오후 1시경 경주우체국 창구를 찾은 70대 여성 고객 조 모씨(만71세)가 다급하고 경직된 표정으로 정기예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중도해약한 뒤 전액 수표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응대에 나선 김 주무관은 거액의 예금을 갑작스럽게 해지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안전한 계좌이체를 안내했으나, 고객은 “아들에게 전달해야 하니 반드시 수표로 찾아가야 한다” 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상 정황을 감지하고 고객을 세심하게 관찰하던 김 주무관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고객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상대방이 통화를 끊는 소리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고객이 창구에 오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으며, 직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사기범이 급히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한 김 주무관은 고객을 안심시키며 출금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당황한 조 씨는 “경주농협에서 전화를 받았고, 곧이어 서울 경찰관이라는 사람에게도 연락이 왔다” 며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을 이어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김 주무관은 고객이 동요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위로하는 한편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악한 정황을 정확히 인계하고 함께 오랜 설득을 거듭한 끝에, 조 씨는 비로소 자신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에 속았음을 깨닫고 피해를 면했다.

이번 사건은 매뉴얼에 기반한 철저한 문진과 창구 직원의 날카로운 눈썰미,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가 어우러져 고액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모범사례다.

이번 피해를 막아낸 김 주무관은 “고객님께서 유독 긴장하신 모습으로 거액의 수표 인출을 고집하셔서 평소 숙지하던 예방 매뉴얼대로 세심하게 살폈다”며, “어르신의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며, 앞으로도 고객 한 분 한 분의 자산을 내 가족의 일처럼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우체국 국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문진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주우체국 영업과	책임자	영 업 과 장	김은수 (054-740-0100)
		담당자	금 융 팀 장	박남영 (054-740-011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